

3~10세를 위한 엄마표 캠핑놀이 106

박근희, 조선앤북, 1만6000원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가 쓴 책. 큰아이 다섯 살 때부터 가족 캠핑을 시작했다. 네 식구가 전국 수십여 곳의 캠핑장을 다니며 놀았다. 이렇게 쌓은 캠핑 노하우와 육아 정보를 개인 블로그(네이버 ngmom)에 올렸다. 이 책에는 따라하기 쉽고 재밌는 캠핑 놀이 정보가 많다.



신이 준 최고의 선물

후지이에 요이치, 글마당, 1만7000원

저자는 일본 도쿄공대 원자공학연구소장, 일본원자력위원회 초대위원장(2001~2007)으로 일했다. 그는 "원자력과 현대문명은 공존 가능하다. 원자력은 인류에게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말한다. 원자력에 기초한 과학기술은 이제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앞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의 양치식물

이창숙·이강현, 지오북, 4만9000원

저자 이창숙씨는 "한국 양치식물의 계통 및 종의 위치를 밝히려고 연구"한다. 다른 저자 이강현씨는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에서 일하며 고사리사랑 카페를 운영한다. 남북한에 자라는 양치식물 32과 7속 264종, 10아종, 14변종, 1품종, 7교잡종, 총 287분류군을 저자들은 이 책에 소개한다. 정성을 들인 책.



역사학의 거장들 역사를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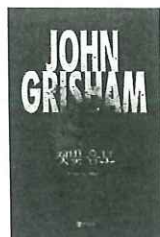
루츠 라파엘 역음, 한길사, 2만5000원

독일 트리어대학 근현대사 교수의 책. 이번 책은 근현대 역사학자 30명에 대해 말한다. 에드워드 기번부터 쾨팅 스키너까지에 대한 간단한 전기적 서술이다. '근대 역사학의 입체적 지도'라고 출판사는 이 책에 대해 말한다. 역사가의 생애와 그가 남긴 책을 통해 근대 역사학을 조명한다.

잿빛 음모

존 그리샴, 문학수첩, 1만4000원

미국의 법정 스릴러 대가의 2015년 최신작. "거대 자원산업의 그림자에 가려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고 출판사는 표지에 홍보문구를 달았다. 석탄 재벌에 매수된 법조계, 광산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공동체마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광산 마을을 보여준다. 그는 대기업의 비리와 사회 모순을 고발해 왔다.



페이스 오프

데이비드 발다치, 황금가지, 1만5000원

국제 스릴러 작가 협회는 회비가 없다. 운영비는 회원들이 단편을 써서 그걸 모아 책으로 내 번 돈으로 조달한다. 이번 책은 영국과 미국의 추리스릴러 작가 22인이 참여했다. 기존에 나온 공동작품집과 포맷이 다르다. 스타 작가들의 작품 속 탐정들이 대결하는 구도이다. 재밌는 작가들이다.



유비 평전

장쥘야오, 민음사, 3만5000원

1931년생, 중국 인민출판사 간부로 일했던 저자는 전작인 '조조 평전'이 한국 독자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이 책의 주인공 유비는 후한(後漢) 이후 삼국시대의 한 나라인 촉한(蜀漢)의 지도자였다. 저자는 촉한이 삼국 중 먼저 망한 이유에 대해 "능력 있는 신하와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없었다"고 말한다.



대학의 위선

데버러 로드, 알마, 1만6000원

미국 스탠퍼드 법대 교수가 "공적 지식인으로서의 교수는 어디로 사라졌는가"라고 묻는다. 저자는 다섯 가지 질문을 던진다. 스누가, 왜,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의 순위를 결정하는가? 현대 학문은 왜 알하지도 않는 난해한 글을 발표하는가? 교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책 서평을 남용하는가 등이다.

상산고 이야기

나현철, 북오션, 1만4000원

상산고는 전북 전주에 있는 자립형사립고다. '수학의 정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씨가 세웠다. 저자는 상산고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일한다. 그의 아들도 2013년 상산고에 들어갔다. 저자는 "상산고는 학생을 믿는다. 자율과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길을 찾게끔 유도한다"고 말한다.



물 생명의 근원, 권력의 상징

베로니카 스트랭, 반니, 1만5000원

영국 더럼대학 인류학 교수의 책. 그는 인간과 환경, 자연, 특히 물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해왔다. 이 책은 물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말한다. 인간이 물을 어떻게 체험하고, 물에 대해 어떤 믿음과 이해를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물을 이용하는지를 얘기한다.



정리= 최준석

나는 사실을 선명하게 확인시켜 준다. 집단 패닉은 반드시 치유해야 할 사회 병리다. 심지어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소비도 곤두박질치고 있다. 전염병이 생길 때마다 바이러스가 숙주 사이를 자유롭게 유포하는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확산되는 공포의 전파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 우리 사회의 신뢰 체계를 견고하게 구축해 공포가 맥을 못 추게 해야 한다. jinye@munhwa.com

문화일보 1991년 11월 1일 창간 / 1990년 9월 26일 등록번호 서울 기20(日)제
www.munhwa.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편집·인쇄인 **李丙圭** 논설실장 **李容式** 편집국장 **崔永範**
☎ 100-723 서울특별시 중구 새문안로 22 전화안내 02)3701-5114

광고문의 02)3701-5566 정치부 02)3701-5100 문화부 02)3701-5210
독자서비스센터 02)3701-5555 경제산업부 02)3701-5190 체육부 02)3701-5230
구독신청·배달안내 (전국무로) 080)930-3000 사회부 02)3701-5130 사진부 02)3701-5240
독자투고·인물동정·인사·부고 FAX 02)3701-5296 전국부 02)3701-5150 인터넷뉴스팀 02)3701-5370
구독료 한달 15,000원, 1부 800원 국제부 02)3701-5160 조시팀 02)3701-5260

‘경쟁의 금’을 잃어버린 탁구대

■ 왜 미술관에 탁구대가 있지? 시합이 있나? 잘 보니 그물만 남기고 탁구대 위의 모든 금을 잃었다. 금이 없어지니 공을 그물을 넘겨서 상대를 공격해야 한다는 규칙도 없어졌다. 그럼 시합이 안 되잖아? 예술은 꼭 이겨야 하는지를 묻는다. 핑, 풍, 핑, 풍. 상대가 받기 좋게 공을 넘겨주고 되받고, 그런 동네 탁구도 있다. 탁구로 긴장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미국과 중국의 핑퐁외교도 있다. 나아가 예술은 경쟁의 금을 잃어버리면 어떨까요 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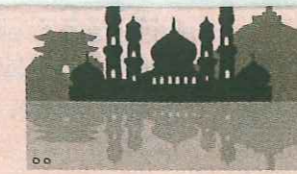
이원호(43)는 여러 가지 장치로 사회의

규칙들을 되묻는다. 일상에서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을 되돌아보게 한다. 그의 관점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한 번쯤 예술가의 시선을 따라서 세상을 보면 좋다. 예술에서 입장을 바꾸어보는 유연한 지혜를 배운다. 그의 작품은 생각하게 하는 장치다. 금이 없는 탁구대를 보니, 요즘 우리 같다. 지금 우리는 ‘동상이몽(同床異夢)’이 아닌, ‘동상동난(同床同難)’에 있다. 나와 나의 금을 잃어버리고, 지혜를 모아 다 함께 해결점을 찾았으면 한다.

선승혜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부장

사다. 이 기간 중 무슬림은 해가 떠 있는 동안엔 침도 삼키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철저히 금식하고, 일몰 후에 가족·이웃과 음식을 나누다. 여유 있는 사람은 많은 음식을 장만해 누구든지 마음껏 먹게 한다.

문제는 백야(白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부 러시아의 무슬림. 이 지역은 하지(夏至) 전후 상당기간 동안 해가 지지 않는다. 밤 12시쯤 조금 어두워지다가 다시 날이 밝아온다. 이에 올해같이 하지(22일)와 라마단이 겹치면, 이슬람 법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진다. 강경파는 다른 지역으로 피난 가서 라마단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온건파는 여행자·병자·임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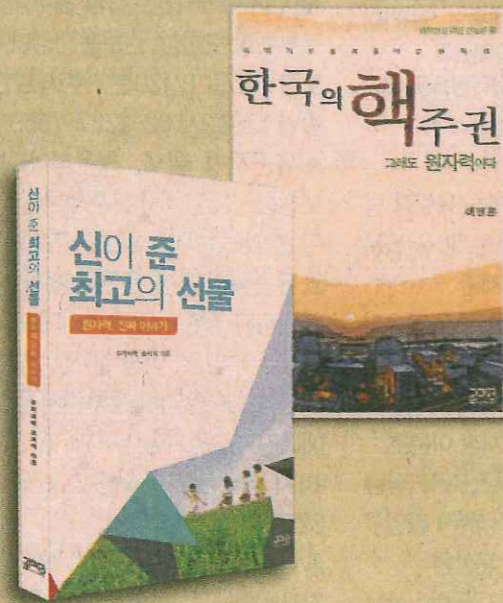
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된 것이다. 일부 러시아인은 러시아 여자들이 히잡 쓴 합성사진을 내걸고 이것이 러시아의 미래라며, 이슬람 혐오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한국에도 외국인 15만, 내국인 3만 등 약 18만 무슬림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몇 년 라마단 기간, 특히 금요일에 때에는 이태원 이슬람 사원과 그 앞길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인파로 꽉 찼다.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 이슬람은 6·25 참전 터키군에 의해 전파돼 1955년에 시작됐다. 올해 60주년이다. 낯설게만 느껴졌던 이슬람이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이다. 황성준 논설위원

북 콘서트

초대 일본원자력위원장 후지이에 요이치 박사 초청 ‘애국시민을 위한 우리 원자력 바로알기’

- 일시 2015년 6월 17일(수) 오후 2:00(식전행사 태평무 공연)
- 장소 NH아트홀(서대문역 5번 출구)
- 주최 애국시민단체연합회, 글마당 출판사



사회 이희범(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특강1)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이 선택한 대한민국의 원자력

김형국 교수(중앙대 정치국제학과)

특강2) 일본이 선택한 원자력, 후쿠시마 이후

후지이에 요이치 박사(초대 일본원자력위원장)

□참석한 분들에게 선착순으로 후지이에 요이치 박사의 저서를 드립니다.

원자력을 알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이승만·박정희가 선택한 원자력과 북한핵 위협, 그리고 주변 中日의 원자력은? 한국은 핵무장국이 될수 있는가, 미국은 한국의 핵재처리를 許하라

서해 인근에 무분별하게 건설중인 중국 원전과 북한핵에 침묵하는 대한민국의 외눈박이 환경단체와 진보·좌파 시민단체들

폐로에 대해서 까막눈인채 선동질만하는 지역환경단체들 이것이 원전 폐로. 최초로 해외 원전 폐로에 대한 모든 것을 소개한다 빅뱅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 향후 고리원전 폐로 과제까지 제시

고리 원전 인근 해운대는 과연 불안한가
대규모 아파트를 허가한 당시 구청장과 지역 국회의원, 부산시장의 책임은?
원자력에 대해 무지한채 정치적인 선동만 일삼는 지역 정치꾼들과 언론, 환경·시민단체들에게 추천하는 두 권의 책!!

신이 준 최고의 선물 - 원자력, 진짜 이야기
신국판 / 340페이지 / 본문 올칼라 / 17,000원

한국의 핵주권 - 그래도 원자력이다
이정훈(신동아 편집위원)
신국판 / 508페이지 / 본문 올칼라 / 5판 / 25,000원

대한민국을 일깨우는 지식의 샘터 **글마당** Gulmadang www.gulmadang.com
구입문의 02)451-1227, 12him@naver.com